

“올림픽 ‘올빼미족’ 잡아라”... ‘응원 먹거리’ 마케팅

대형마트들, 치킨·간편식 할인전 이마트, 수입맥주·안주류 등 선배 홈플러스, 9990원 치킨·맥주 출시 롯데마트, 와인·디저트 ‘1+1 행사’

대형마트들이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을 맞아 ‘응원 먹거리’ 할인전에 돌입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집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집관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킨, 초밥, 간편식, 주류 등 먹거리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이마트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집에서 스포츠 경기 관람 시 즐기기에 좋은 맥주와 안주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에비스(500ml, 캔), 스텔라 아르투아(740ml, 캔), 아사히(640ml, 병), 버드와이저(740ml, 캔) 등 프리미엄 수입 맥주 18종에 대해 골라담기 행사를 연다. 1만2000

원에 원하는 맥주 4캔(병)을 골라 구입할 수 있다.

맥주와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이마트 인기 델리 상품도 저렴하게 선보인다. 대표적 야식 메뉴인 ‘시크릿 양념치킨 2종(매콤맛/간장맛, 팩, 국내산 계육)’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각 25% 할인된 1만1900원대에 판매하며, ‘양장피(대)’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00원 할인된 1만4900원대에 선보인다.

이 밖에 안주류 가공 식품으로 ‘질러블 랙앤레드 페퍼육포(100g)’를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골빔면(골뱅이+비빔면)’ 레시피 재료인 ‘동원 자연산 골뱅이(300g)’와 ‘팔도 비빔면(130g x 4개)’을 동시에 구입할 경우 1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피코크’ 간편식인 ‘로코소 바베큐팝업 시그니처/코리안 스파이시(500g, 각)’를 1만4900원대에, ‘피룩분식 모짜렐라 크리스피 핫도그(550g)’ 7900원대에,

‘새우듬뿍 감바스 알아하요(544g)’을 1만2900원대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도 오는 31일까지 응원 먹거리를 할인 판매한다.

먼저 다리와 날개 부위로만 구성된 신메뉴 ‘당당 허브후라이드치킨콤보’를 9990원에 판매하고 구매 시 치킨 무를 증정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25~27일 ‘대짜 등심잡쌀탕수육’과 ‘대짜 여수꼬막비빔밥’을 3000원 할인해 각 1만2900원대, 9900원대에 내놓는다. 31일까지 ‘홈플러스탁 매콤간판닭강정/한판 닭강정’과 ‘고백스시 한판새우초밥 20입’은 2000원 할인하고 ‘홈플러스탁 갈비왕 오븐치킨’과 ‘홈플러스탁 한판새우튀김 20마리’는 3000원 할인한다.

다양한 간편식과 음료도 ‘1+1’으로 만날 수 있다. 치킨·너겟 10여종, 풀무원·CJ·오뚜기 피자 9종, 아워홈 오리지널·텍사스 바비큐 폭립, 롯데칠성 탄산음료 4

종 등이다. 국내산 핫감자로 만든 포카칩 어니언·오리지널은 홈플러스 단독으로 각 1000원에 선보인다.

주류도 저렴하게 판다. 7대 카드 결제 시 와인 전품목 1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 즉시할인, 위스키 전품목 1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즉시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세계맥주 90여 종 5캔 9900원, 병맥주 9종은 9900원에 판매한다. 7대 카드는 신한/삼성/국민/롯데/농협/광주/전북카드(BC/법인/선불/기프트카드제외)다.

롯데마트 역시 프렌치 델리 등 주요 먹거리를 할인 판매한다.

오는 28일까지 전점에서 ‘1등급 한우 등심(100g/냉장)’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40% 할인 판매한다. 특히 ‘미국산 소프라이머적아이를(100g/냉장)’은 이번 주 핫프라이스 상품으로 선정, 28일까지 행사카드(롯데/BC/신한/NH농협) 결제 시 50% 할인한 1900원대 특가로 선보인

다. ‘NEW 한통 가아아아득 치킨(팩/국내산)’은 1만990원대에, ‘국내산 통족발(중)’은 1만 3900원대에, ‘큰 초밥(20입)’은 1만 5900원대에 판매하고, ‘아사히’, ‘삿포로’ 등 주요 세계맥주 20종에 대해 6캔 구매 시 1만2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단독 상품인 ‘피카드’ 냉동 상품을 포함해 와인, 디저트류 상품 등도 할인 판매한다. ‘피카드 미니 애플 브레드(360g)’와 ‘피카드 빵오소콜라(420g)’를 각 8900원대에 ‘원플러스원(1+1)’에 판매하고, ‘피카드 미니 버터 크로아상(250g)’을 포함해 피카드 냉동 상품 17품목에 대해서는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프랑스 정통 치즈로 만든 ‘빙그레 밸류브 치즈 4종’에 대해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해 판매하고, 프랑스 대표 과자인 ‘폴트 타르트 2종(딸기/초콜릿&헤이즐넛)’도 1+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백, ‘바캉스·캠핑’ 식품 할인전 롯데백화점은 오는 30일까지 전점(일산·김포 제외)에서 바캉스와 캠핑을 테마로 다양한 신선식품을 할인 판매한다. 먼저 축산 상품으로 한우 등심, 안심, 채끝, 안창살, 꽃갈비살, 차돌박이 등 다양한 부위를 40% 할인한다. 2인, 3인 등 구성원에 맞는 세트 상품도 선보이며 같은 기간 돈육 삼겹살과 목살도 40% 할인해 판매한다. 바캉스와 캠핑하면 빠질 수 없는 복숭아와 쌈채소도 26일부터 28일까지 2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광주은행, 2분기 개인형퇴직연금 수익률 ‘은행권 1위’

시중은행 평균 대비 2.6%p ↑ 5개 분기 연속 1위 기록 주목

광주은행이 올해 2분기 퇴직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운용 수익률 부문에서 5개 분기 연속 은행권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5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광주은행의 IRP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최근 1년간)은 15.8%로 은행권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6대 시중은행의 평균 수익률인 13.2%보다 2.6%p 높은 수치를 달성하며

광주은행의 퇴직연금 상품 운용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5개 분기 연속 은행권 1위 성과는 광주은행만의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가 뒷받침했다. 지난달 대고객 자산관리서비스의 영역을 은퇴준비와 노후대비를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자, 자산관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배치해 ‘The PrimeAge Center’를 출범했으며, 이외에도 Prime PB센터, 봉선금융센터(WM 라운지) 등 전문 PB센터와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자산운용과 수익률 강화를 위해 수익률 관리 전문가를 채용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1:1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은퇴 자산 관리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배인명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고객들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적기에 추천해 자산배분을 적극 조정할 전략이 주효했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를 통해 고객들의 풍요로운 노후 자산 확보와 은퇴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국민연금-광주경총 “근로자 노후준비 상담 지원”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와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경총은 광주시 및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지역 중소기업 2300여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제단체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기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광주시 5개구 및 전남지역 해당 8개 시·군 관할 지사장(동광주시사, 북광주시사, 나주시사)도 함께 참여해 협력을 약속했다. **나다운 기자**

2천억 규모... 31일부터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오는 31일부터 공급한다.

25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기존 저신용 소상공인에서 중신용자까지 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용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이번 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edu.sbiz.or.kr)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h.or.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소영 기자**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공급

재테크 칼럼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중앙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개인의 실질소득은 낮아진다. 그래서 고물가 시대에 현금을 저축하는 대신 금이나 고물가에 대응할 수 있는 주식 종목 등에 투자해서 현금의 가치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환율이 개인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외로 둔감한 사람들이 많다.

고물가·고금리처럼 무서운 ‘고환율 시대’

보통 환율은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자국 화폐의 교환가치를 말하며 그 가치를 기준으로 각 국가 간 환율도 정해진다.

환율이 원화 대비 강달러일 때와 약달러일 때 각각 개인소득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업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다. 고환율일 때는 수출업과 관광업 등은 호황을 맞을 수 있는 반면, 수입 관련 업종과 내수업종 등은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각 업종 종사

자들의 소득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기축통화인 달러의 시작으로 보면 호황 업종에 종사하는 불황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의 실질소득은 하락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호황을 누리는 업종의 종사자들도 원화 수입은 늘겠지만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현상 유지에 불과하거나 오히려 줄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입이 증가하려면 달러로 환전했을 때도 수입이 증가해야 한다. 고환율로 인한 산 구매비용의 효과로 고환율을 보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전시기고남을만큼의 많은 매출을 올렸을 때 수입, 또는 소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환율이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할 때 개인의 소득은 안정된다. 예컨대 1000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으로 상승하면 개인의 소득은 나도 모르게 40%가 줄어들게 된다. 역대급 엔저 상황을 맞이한 일본의 경우 수출과 관광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개인소득은 줄면서 ‘싸구려 일본’이

라는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실리콘 밸리와 일본의 강남이라는 미나토구의 거주자의 소득을 비교하면 실리콘 밸리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소득이 엔화 소득으로 2400만엔인데 엔저의 영향으로 미나토구 거주자의 평균소득이 실리콘 밸리 저소득층에도 못 미치는 1300만엔이라고 한다. 환율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보다는 낫지만 우리나라 환율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고물가, 고금리에 더해 고환율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나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깊은 생각이 필요할 때다.